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

포장횟수 과다·지나치게 큰 포장 단속 재포장 금지 규정 위반도 단속 대상 포함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16일 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체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를 집중단속한다.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부터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속도 실시된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

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고,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건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기·생선·과일·야채 등 1차 식품 ▲날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김·사탕·냉동 즉석밥 세트 등)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설에도 1만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이한열 열사 묘소 벌초 27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광주전남추모연대의 추석맞이 벌초 작업에서 고(故) 이한열 열사의 묘소가 정비되고 있다.

돌봄 등 취약업종 10% '주52시간 초과'

사업장 498개소 대상...9.6% 연장근로 한도 위반

돌봄업종 등 취약직종 사업장의 10%는 여전히 주52시간 초과 등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만 그 사유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있다며 현행 주52시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대표적 취약 직종인 돌봄종사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돌봄 등 돌봄업종 사업장 340개소와 제조업 등 지역별 취약업종 사업장 158개소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주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사업장의 주52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돌봄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은 8개소(2.4%), 초과 근로시간은 주 9.7시간이었다.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에는 40개소(25.3%)로 초과 근로시간은 주 5.8시간이었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5240명) 대비 연장근로 위반 인원(774명)은 평균 14.8%였다. 이 중 5% 미만(18개소)이 37.5%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위반의 주요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런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김재환기자

전남경찰, 9월 12일까지 '추석 특별 치안 활동'

금은방 등 취약시설 대상 범죄 예방·순찰 강화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2주 동안 '추석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연휴 기간으로, 치안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해 추석에 앞서 범죄 예방전담팀(CPO)을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금은방 등 취약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을 벌인다. 다세대 밀집 지역 등지에선 빈집털이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며 관련 홍보 활동을 펼친다. 또한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112신고

가 증가하고 특히 가정폭력 신고가 집중되는 만큼, 재발 우려 가정 모니터링을 거쳐 피해 예방·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안전확보,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 전 사흘간은 1단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해 대형마트·공원묘지 등 혼잡 장소를 중심으로 원활한 소통을 유도한다.

추석 연휴를 비롯한 단세 간은 2단계 관리 기간으로, 고속도로·연계 국도와 귀성·귀경길 안전 확보에 힘쓴다. 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